

## 금요 양성 2024년 12월 6일 대림-기다림과 회개 2부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 이번 주와 다음 두주에 걸친 3부로 된 금요 양성은 일년 중 어느때라도 형제회 영속 양성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림시기동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가 이 지상을 걸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체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3주동안 우리는 프란시스 성인이 다미아노 십자가앞에서 무릎 꿇고 드렸던 기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각 부분은 기다림과 회개의 대림시기에 중요합니다. (한국본 기도 출처: 프란치스칸 원천 1. 영문원본에 맞추어 여순 변경)

Most High, 지극히 높으시고  
glorious God,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enlighten the darkness of my heart 내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and give me 저에게**  
**true faith, 올바른 믿음과**  
**certain hope, 확고한 희망과**  
**and perfect charity,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sense and knowledge, 감각과 깨달음을주소서,**  
**Lord, 주님,**  
that I may carry out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Your holy and true command. 실천할 수 있도록.

### 2부: 믿음과 희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주님..."*

**숙고해 보시오:**

**+ 우리 회칙 19조 -**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우리 회칙 9조 -**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흔연히 응답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프란치스코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셨고, 프란치스코는 그분을 가족의 수호자와 변호자로 선언하셨다. 회원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께 뜨거운 사랑을 보여야 한다.

**+ 권고 27: 악습을 몰아내는 덕**

- <sup>1</sup>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 <sup>2</sup>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분노도 동요도 없습니다.
- <sup>3</sup>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탐욕도 인색도 없습니다.
- <sup>4</sup>고요와 목상이 있는 곳에 걱정도 방황도 없습니다.
- <sup>5</sup>자기집을 지킴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원수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 <sup>6</sup>자비와 신중함이 있는 곳에 지나침도 완고함도 없습니다.

<https://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undated-writings/the-admonitions/153-fa-ed-1-page-137>

**+ 대림시기동안**,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신 복되신 어머니를 닮고자 노력합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과 서약시에 우리가 약속한 것에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토의나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

- + 당신의 형제회나 가족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가족이나 형제회 월례회에서 부딪치는 도전/주제들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합니까?
- + 복되신 어머니의 어떤 특성을 닮으려고 애씁니까? 육화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 보시오.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는데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 + 성 프란시스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는 권고들이 쓰이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권고 27에 따르면 하느님은 프란시스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영감을 주신 Anne Mulqueen, OFS 에게 감사드립니다.*